

2/14/21

설교 제목: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 39 장 1-23 절

- (창 39: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 (창 39: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절관주** 시 1:3, 잠 10:6
- (창 39: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 (창 39: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 (창 39: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절관주** 삼상 16:12
- (창 39: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 (창 39: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 (창 39:9)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절관주** 창 20:6
- (창 39:10)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절관주** 잠 7:18
- (창 39: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 (창 39: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 (창 39: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 (창 39: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 (창 39: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 (창 39: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 (창 39: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 (창 39: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 (창 39: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 (창 39: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 (창 39: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절판주** 잠 16:7
- (창 39: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 (창 39: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은 형통을 좋아합니다.

만사형통이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길래 찬송가도 384(통 434)장을 애창합니다.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송가의 작곡자는 Robert Lowry 이고 작사자는 F. J. Crosby 입니다.

F. J. Crosby 는 어려서 장님이 된 여인입니다.

그녀가 생후 6 주 쯤 되었을 때 갑자기 감기에 걸려 눈이 부어 올랐는데 의사가 눈병으로 착각하여
매운 겨자 연고를 처방해 주었고 그것을 바른 Crosby 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어느날 Crosby 는 \$5 가 급히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기도를 마쳤을 때
자신의 팬이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 그의 손에 \$5 를 쥐어 주고 갔습니다.

Cosby 는 자신의 형편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녀는 이 시에서 자신의 삶의 만사형통을 노래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살면서 \$5 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만 했던 그녀의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도 만사형통한 삶으로 비쳐졌을까요?

하지만 Crosby 는 자신의 삶이 형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께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Crosby 는 비록 시력을 잃어 캄캄한 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6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에서와 그 후손들의 세상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들의 삶을 가리켜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 세상적인 형통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형통은 세상에서 어려움없이 살며 거기에 더해 부와 권력을 거머지어 잘먹고 잘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그런 것과는 무관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 여부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경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한 요셉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꿈 이야기를 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때가 17 세이니 이때 요셉의 나이 많아야 17-19 세 정도였을 것입니다.

(창 39:1)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 39: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 39: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창 39: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 39: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그것을 안 주인 보디발은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위탁하였습니다.

노예로 팔려와 천신만고 끝에 주인에게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창 39: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창 39: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창 39: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창 39: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창 39: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잡아 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창 39: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창 39: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에게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 찾아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딤후 3: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형통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본절은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창 39: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 39: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창 39: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간수장으로부터 은혜 받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의 삶이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면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지요.

노예로 이방 애굽 땅에 팔려 오는 일도 없었어야지요.

아니 애초부터 그가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는 일이 없었어야지요.

남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겪는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사실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둔 것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던 보디발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애굽 땅 그중에서도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팔려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자 초석을 놓은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에 대해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 105:16)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시 105:17)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 105:18)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시 105:19)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형제들을 섬기는 주 희생당하는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섬기는 주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으로 인해 먹을 양식이 없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온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 45: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창 45: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창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 45: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창 45: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 45: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자신을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쿨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 어려움없이 잘 풀려 나가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거머지고 지도자로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형통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점철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어린 나이에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 종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전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었기에 그의 인생은 형통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대속적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후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